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2. 18.(수) 14:00 < 12.19.(목) 조간 > 배포 2024. 12. 18.(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 태백시로 최종 확정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최종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18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강원도 태백시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서, 고준위 방폐물이나 사용후핵연료는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동 시설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이후 방폐장 부지선정 및 건설·운영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시설 개방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올해 6.18(화) 부지 공모 이후, 8.2(금) 유치계획서 접수를 종료하였으며, 강원-태백시 단독 신청으로 마감되었다. 이후 부지적합성평가분과(12명), 수용성평가분과(8명) 등 총 20명의 민간위원으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태백시 제안부지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 8개 평가기준 : ①암종적합성, ②부지면적·부지적정성, ③부지정지·건설용이성, ④재해영향, ⑤주변자연·생활환경영향, ⑥지역경제·균형발전기여, ⑦주민수용성, ⑧지자체 지원의지

산업부는 내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6년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24)부지선정 → ('25)사업준비(예타 등) → ('26)사업착수 → ('32)준공('30년부터 부분운영)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환경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40)
		담당자	사무관	박준영 (044-203-5348)
			사무관	권 준 (044-203-53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개요** * Underground Research Lab

□ **(개요)**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지질환경**(심도 약 500m)에서 방폐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안전성 검증 등을 수행하는 시설**

○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도국도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이전부터 **연구용 URL 구축·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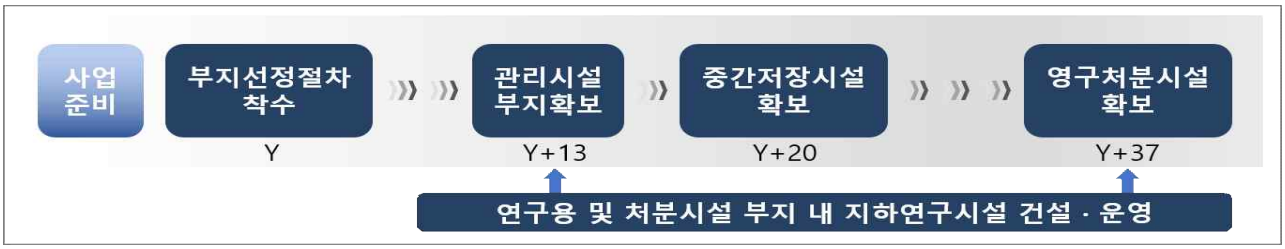
□ **(필요성) 안전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건설 필수**

○ **(안전성)**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 가능한 시설 확보를 위해 부지·처분기술 등에 대한 **충분한 실증** 및 **전문인력 훈련·양성**

- 現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핵심기술개발('21~'29년, 총 4,298억원) 결과를 기반으로, **심부환경 후속연구 수행**

○ **(시급성)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上 총 37년에 걸친 고준위 방폐장 확보 일정 감안시, **URL 적기구축** 및 **관리기술 확보 필수**

<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上 고준위 방폐장 확보일정>



○ **(수용성) 안전성 확인결과 공개, 주민 시설개방** 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주민 수용성 제고**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사업(안) >

○ **(예산/기간(안))** 총 5,138억원 / '26년~'32년 ('30년부터 부분운영)

○ **(시설구성)** 지상시설(연구관, 홍보관 등) 및 지하시설(심도 약 500m)

○ **(연구개발 계획)** URL에서의 용기, 처분터널 등 공학적 방벽과 천연방벽 등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통해 2040년대 한국형 처분개념 완성 추진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개념도 >

